

마사회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반론 보도자료

실는 순서

한국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 추진현황 설명자료'(2014. 7)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반박 보도자료 - 2쪽

유령 단체들을 동원하거나 단체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를 대대적으로 연,
부도덕한 마사회 - 19쪽

<중앙선데이>의 현명관 마사회장 편파 인터뷰(7/13)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반론 - 21쪽

2014. 7. 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 추진현황 설명자료’(2014. 7)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반박 보도자료

이 자료는 마사회가 지난 6월27일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적으로 개장하고, 7월초 발표한 ‘용산 장외발매소 추진현황 설명자료’(2014. 7)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입니다. 내용 순서를 마사회의 발표 자료 순서에 따라 전개됩니다.

1. “용산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가 아닌 이전 설치”라는 점에 대해

- 1988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현 위치 바로 옆에 2개 층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2001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옆에 4개 층을 빌려 운영함.

- 최초 이 지역 운영 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합의나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으며, 2개층 운영만으로도 교통 혼잡과 취객, 퇴폐업소 난립 등 폐해가 심각했다고 함(이 지역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전언).

- 직전 운영지였던 용산역은 아이파크몰과 용산역으로 둘러싸여있고, 철도차량기지가 꽉 막고 있어서 운영 사실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을 만큼 주택가와 학교에서 격리되어 있었음. 그러나 용산역 주변은 부랑객들이 많았고, 거리질서도 혼잡했으며, 사창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퇴폐유흥업소와 뒤섞여 있었음. 그렇더라도 이것이 용산역의 영향권에 흡수되어 장외발매소 자체만의 문제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 현재 이전지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사옥을 신축함. 신축 과정 중(2009년11월 시행사와 계약한 후부터 2012년 12월 마사회가 사용승인이 끝난 건물과 부지를 인수할 때까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

- 이것은 단순한 동일구역 내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백한 확장 신축이전이며, 학교 앞과 주택가 밀집지역에 바짝 다가선 이전이기 때문에 주민들 및 해당 교육기관들과 반드시 협의를 했어야 함¹⁾.

1) 마사회는 농림부의 ‘2009 개설 승인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동일지역 내 이전시 제외(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규정을 강조하며 주민동의를 필요없다고 강변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동일구역 내 이전이 아니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신축 확장 이전이었기에 마땅히 주민 동의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농림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농림부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 승인을 한 것임.

2. '용산 장외발매소,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와 무관'이라는 점에 대해

- 학교정화구역(200m) 밖이라는 점만 강조하지만, 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해한 시설의 위협에서 보호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취지임. 당구장이나 노래방 등의 단순 유해시설 등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25층 규모의 대형 도박장이 학교 바로 앞에 신축 운영되는 것은 그것이 200m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마사회는 본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오로지 200m규정만 악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마사회법과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주변법령²⁾에서는 '사행성 유발요인'을 들어 간선도로 변에는 장외발매소를 짓지 않도록³⁾ 하고 있으나 마사회는 이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용산로와 한강로가 접한 12차로 간선도로 변에 버젓이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신축함.
- 이 건물 주변과 그 앞 도로는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 중 하나이며, 바로 옆 롯데시네마와 전자상가 건물은 학생들이 주로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일요일에 영화 관람 및 기타 다양한 문화 생활을 위해 매우 많이 찾는 곳임.

도박장 부근 통학로/주변 시설 이용자 현황(2013.6월 현재)

<성심여중·고 통계 종합>

	성심여중	성심여고	합계
통학로	42	99	141
주변시설 이용	158	380	538
계	200(53%)	479(57.7%)	679(56.3%)
재적인원	377	830	1,207

* 배문중·고, 신광여중·고 통학생들도 다수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 위 조사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심여중고생의 56.3%가 이 앞과 주변을 지나치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원효초, 남정초, 금양초, 배문중고,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상당한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고 이 주변 시설을 이용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학교보건법', '농지법 시행령' 등
 3) 위 관계법령 중 '기타 사행성 유발요인' 항목(이는 사감위가 연구의뢰한,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2011.12) 참고. ○ 입지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된 요인 이외에 접근의 용이성과 주변 인구를 고려할 수 있음. ○ 접근의 용이성은 장외발매소가 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통행자에 쉽게 노출되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간선도로변보다는 이면도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왕복 4차선(1차선은 2m)을 기준함. ○ 아울러, 도심에 위치하여 인구가 밀집한 곳에 위치할 경우 도박중독, 사행성, 민원 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아짐. 따라서 주변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외발매소가 위치하는 시, 군, 구의 km^2 당 평균 인구밀도인 11,026명을 기준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청소년 주 대상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



▲마사회가 주차장을 임대한 옆 건물 앞으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3.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으로 주민불안 해소' 항목에 대해

- 1200억 원 이상 들인 건물을 시범운영조차 못하게 하느냐는 마사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범운영은 그 규모만 줄인 것이지 정상운영과 다를 바 없음.

- '심각한 민원 유발 시 폐쇄 후 용도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심각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구체성이 없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지 못함. 이는 마사회가 지금까지처럼 1년 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도 제시하지 못할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

- 서울의 다른 8개 영업장과 대전, 천안 등 전국의 30개 영업장에서는 한결같이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고⁵⁾, 그것은 더 악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주택가 밀

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음.(위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2011.12) 참고.)

5) '15일 찾은 이곳은 전날 열린 화상경마의 여파가 그대로 느껴졌다. 바닥 곳곳엔 물에 젖은 마권구매표 OMR 카드, 5만~8만원이 찍혀 있는 영수증 봉치가 수백 장씩 버려져 있었다. 입장객이 피운 담배꽂초도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먹다 버린 음료수통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매표소와 화상 중계장(3~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매우 지저분했다. 담배냄새와 술냄새, 심지어 노상방뇨 흔적도 보였다.'(중앙일보 2013-07017). '그리고 화상경마장은 사행시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았다면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 말이 직접 달리는 경마장과는 달리 실내에서 TV화면을 보고 배팅하는 화상경마는 도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임장의 스크린 경마와 다를 바 없다. 대전과 천안의 화상경마장 주변은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변 도시에서 원정 오는 사람들로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로까지도 주차장으로 변한다. 실내는 가족 나들이객이나 활기찬 모습의 손님은 찾아볼 수 없고 경

집지역, 학교 앞에 시설만 현대적으로 신축하여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 사고가 난 다음에는 CCTV나 무술 경호원은 아무 소용없음. 우선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정성을 공인된 기관이나 권위있는 단체로부터 검증받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에도 다른 지사들에서는 위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마사회는 개선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7월 12일 현재 영등포지사와 동대문지사의 폐장 전후 모습(아래 사진 참고).

	
<p>7/12 영등포 장외발매소 전경</p>	<p>7/12 영등포 지사 옆 길가 오토바이 불법주차</p>

마정보지와 마권을 손에 들고 오직 돈을 따겠다는 비장한 표정의 사람들로 넘쳐난다. 처음에는 주변상인들은 은근히 경마장이 들어서기를 기대했으나 주변상가에서 밥 한 그릇 제대로 사먹는 사람은 없고 쓰레기만 넘쳐난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충청일보 2013-06-04).
 '1998년 대전 발매소 개설 이후 주민교통은 형언키 어렵다. 도시슬럼화 등 각종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갔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자들을 도심 속에서 키워내는 데 따른 부작용을 보는 심정이 편할 리가 없다. 불법주차-교통난에다 교육-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충청투데이 2014-04-11).



7/12 영등포 지사 앞 경마지 상인과 불법주차 퇴폐업소 간판(귀청소방 등)



7/12 영등포 지사 앞 나이트 간판에서 노상방뇨하는 경마객



7/12 영등포 지사 앞 - 폐장즈음 몰려나오는 경마객과 거리에 나왔어 흡연하는 모습



7/12 영등포 지사 앞길 - 폐장 후 거리를 꽉 메운 경마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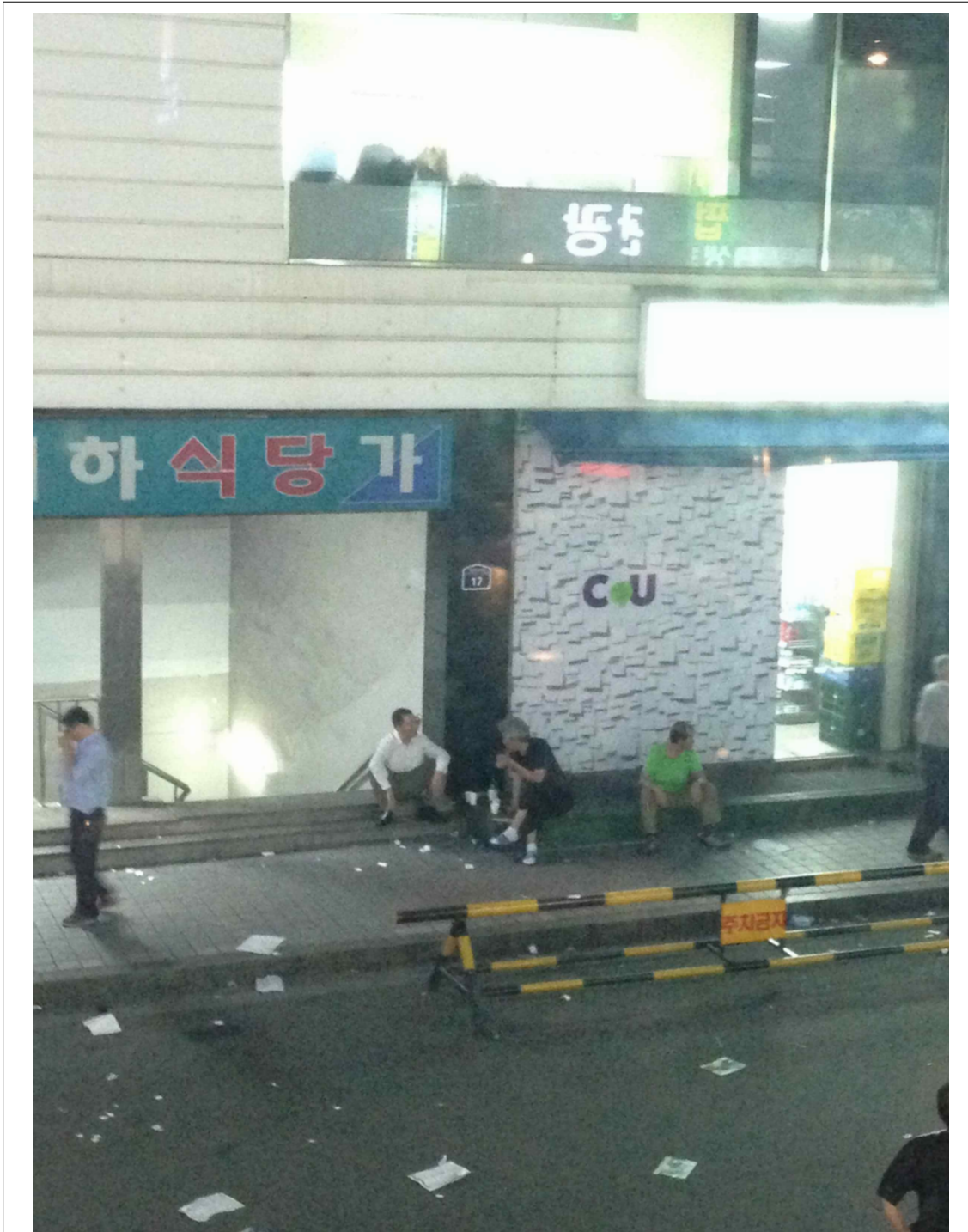
7/12 영등포 지사 앞 - 폐장 후 대혼란



7/12 영등포 지사 앞 - 폐장즈음 모여 나와서 흡연하는 모습



7/12 영등포 지사 뒤 공원 - 폐장 후 음주하는 모습



7/12 영등포 지사 앞 노상 음주 경마객과 거리의 쓰레기들



7/12 영등포 지사 앞 대부업소 간판



7/12 영등포 지사 주변 불법 사행업소



7/12 영등포 지사 옆 러브호텔



7/12 동대문 지사 - 객장 안 모습



7/12 동대문 지사 앞 - 오토바이 불법주차



7/12 동대문 지사 앞 경마객들의 길거리 음주



7/12 동대문 지사 앞 길거리 음주



7/12 동대문 지사 앞 경마객들



7/12 동대문 지사 주변 취객과 상인들



7/12 동대문 지사 앞 도로 - 길거리 음주와 흡연



7/12 오후 7:30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원효로3가쪽 건널목을 건너면 있는 작은 벤치, 음주 후
노상방뇨를 하고 누워있는 경마 취객

- 2013년 9월, 하남 여고생 살해범은 경륜·경마에 빠진 40대 남자!

“하남 여고생 살해범은 '경륜 빚진 40대男'”

[앵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어젯밤(26일밤)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는데, 평소 경륜과 경마에 빠져 빚에 허덕여 온 것이 범행의 주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2살 진모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경륜과 경마 등에 빠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신용 불량자였던 것이 이번 범행의 주된 이유로 드러났습니다. 진씨는 지난 15일 밤 하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돈을 빼앗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공부를 마친 뒤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광현 / 하남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목, 등, 옆구리 등을..."

진씨는 경찰 조사 초기엔 '운동삼아 자전거를 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달아나는 장면 등 현장 CCTV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특히 과도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등 범행을 작정하고 밖으로 나갔던 진씨는, 홀로 귀가를 하고 있던 여고생을 발견하자 돈을 빼앗기 위해 여고생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격하게 저항하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여고생을 살해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진모씨 / 여고생 살해 피의자>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마음 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씨는 뒤늦게 범행을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돌이키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진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채현입니다.6)

물론 모든 경마객이 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은(70~80%) 화상경마는 적지 않은 경마객을 이런 비극에 빠뜨릴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용산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위의 사건처럼 여학생이 될 개연성도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음.

마사회는 용산에서 시범개장을 해 본 뒤 문제가 '없으면, 또는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 문제란 것이 과연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임. 극단적으로 누군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발생한다면을 상정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해야 폐쇄를 한다는 것인지 마사회는 분명히 밝혀야 함. 그리고 만약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한국마사회를 비롯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게 한 모든 관련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 '용산의 세월호'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메타포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임.

6) '하남 여고생 살해범은 경륜 빚진 40대男', 연합뉴스(2013-09-27).

4. '용산 장외발매소, 주요 민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반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의견을 비논리적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거부한 마사회:**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 기관임. 일개 공기업인 마사회가 이런 정부 기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국가 기강 차원에서든 문제가 큼.

● **사감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하여:**

마사회는 현 이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마사회는 이미 1차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도심으로부터 격리와 외곽 축소 이전 원칙'을 무시하고 이전을 위한 공사를 4년간 은밀히 진행했으며, 2차 종합계획에서도 명시한 '이전 시 사전 협의 및 영향 평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전을 시도했고 개장을 강행함. 또한, 농림부와 마사회는 이전 승인 전에 사감위와 협의하기로 되어있는 농림부의 지침(조차 전혀 지키지 않음⁸⁾).

●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신규 설치가 아닌 이전 설치의 주민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서도 논박함. 마사회는 농림부의 '2009 개설 승인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동일지역 내 이전 시 제외 (의견 수렴 및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규정을 강조하며 주민동의가 필요없다고 강변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동일구역 내 이전이 아니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신축 확장 이전이었기에 마땅히 주민 동의를 구해야 했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농림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농림부도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전 승인을 해 준 것임.

- 지난 해 8월 이후 수십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하는 일부 상인과 매수한 지역 인사들하고만 가진 자리였고, 주민대책위를 공식 초대하지는 않았음. 무엇보다 이 주민설명회는 개장을 전제로 하여 마사회의 이와 같은 홍보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음. 25만 중 17만 용산주민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이를 진정으로 수용하고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려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4년간 숨기며 건물을 지어온 것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음.

- 또한 올해 1월 박기성 본부장은 마사회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기습입점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최대한 자주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것도 무참히 깨버림.

- 대책위가 농림부에 낸 민원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시종일관 앵무새 같은 답변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포함된 문구는 다음과 같음.

“한국마사회의 이전 승인 신청 서류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민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부는 해당 민원 대책을 포함하여 이전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을 최대한 해소한 이후에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7) 농림부의 2009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

8) "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사감위와 이전 협의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발표"(머니투데이 2013-08-11)참고.

이것이 마사회의 이전 승인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답변이라면, 민원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일고 있는 지금, 마사회의 기습적 시범개장은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농림부가 마사회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인가 심각한 의문이 듭.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	백승민 (044-201-2325)	•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7-165377
• 접수일	2013.07.31. 17:09:2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7-350304
• 처리 예정일	2013.08.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 답변일 2013.08.06. 17:08:12

•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감위와 사전 협의 관련
동 건 용산 이전 시에 농식품부는 기존 장외발매소와의 입장정원 동결, 전층 지정좌석제 실시 및 복합레저 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이전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사감위 관계관과 수차례 구두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 관계관도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의 승인 이전에 사감위 관계관에게 이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차례 구두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민원발생 해소 관련
한국마사회의 이전 승인 신청서류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민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부는 해당 민원 대책을 포함하여 이전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의 교육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을 최대한 해소한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민원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설득 없이 기습적으로 개장했다는 것에 대한 마사회의 변명에 대해 :**

마사회는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었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협의를 2014년 1월 이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 세금 수천만 원을 들여 홍보성 여론조사를 한 것이 주민들에게 발각되고 언론에 보도되어⁹⁾ 사과한 적이 있음.

‘반대측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 도박장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와 주민들이 도박으로 인해 삶을 황폐화하고 가정과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또한 마사회가 오히려 대책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개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했기에 그동안 대화에 진척이 없었음.

● **돈 잃은 경마 고객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하지 않는가에 대해 마사회는 :**

중상류층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마사회 스스로가 경제적 중하류층 서민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며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로 치부한 셈임. 주민대책위는 화상경마도박을 반대하고 있고, 화상경마의 도박중독유병률이 70~80%에 이른다는 여러 연구 보고가 있으며, 화상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거리 혼잡과 이 시설의 기차 효과에 따른 퇴폐유흥업소의 난립, 각종 범죄율 증가 등 이미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임. 경마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마사회가 한 말임.

안전요원 배치와 CCTV추가확보는 충동적 범죄를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아니며, 단지 사건이 발생한 후 뒷수습을 위한 대책일 뿐임. 또한 마사회가 경찰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지역들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폐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시설 없어도 지금까지 이 지역은 큰 범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

5. ‘장외발매소, 지방 재정과 교육재원의 확보에 기여’에 대해

마사회는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 7,838억 원 기여, 교육세 3,134억 원 납부, 농축산발전기금 3,962억 원 기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마사회는 2011년 총 7조83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¹⁰⁾ 그 중의 약 1/6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뜻.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기여금액이 전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홍보나 보도는 별로 없음.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재정 기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재원의 72%가 장외발매소를 통해 발생한다고 함. 이는 그 돈이 전국의 서민들¹¹⁾ 약 1614만 명이 매주 화상경마도박으로 탕진한 돈이며, 도박 중독에 걸려 자신과 가정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거리 및 주변 환경을 혼잡하게 하고, 퇴폐유흥업소가 난립하도록 한 결과로 얻은 돈임. 한편 국내 사행산업 중 화상경마도박이 최대 규모인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8조 원으로 이는 국내 총생산의 7.3%에 달하며¹²⁾, 마사회가 사회에 기여

9) “마사회와 무관?...용산경마장 여론조사 ‘거짓말’ 들통”(한겨레 2014-01-21).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6. 발표 자료.

11) 화상경마 전체이용자 중 67.4%가 월소득 400만 원 이하(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국감자료).

12)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가 경마... 입장객 주는데 1인당 베탱액 늘어 매출은 증가”(경향신문 2013-09-05)

한다고 주장하는 돈의 60배에 해당함. 그러나 마사회는 도박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연구보고도 있음.¹³⁾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마땅히 좋은 일이나 마사회가 그렇게 생색내기 이전에 마사회가 도심과 주거밀집지, 학교 앞 등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리는 것이 정직한 홍보라고 생각되며, 마사회는 가장 심각하게 도박중독을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그 치료에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성찰해야 함.

좋은 데 쓰이는 돈은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어야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마사회의 모습은 도둑질과 강도짓을 해서 번 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고 자랑하는 격과 같이 매우 파렴치함.

마사회가 부르짖는 ‘지역 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1/4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거리질서를 파괴하고, 퇴폐유흥업소를 조장하고,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서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사회가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상생’의 본질인 것임.

화상경마에 대한 마사회의 착각

마사회는, 경마는 도박이 아니고 스포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는 사행산업 감독위원회가 규정한 엄연한 도박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도박중독(도박중독 유병률은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70~80%구간에 위치)을 일으키는 무서운 도박입니다.

13) “경마는 도박중독클리닉이 있는 곳 3.2%, 없는 곳 96.8%이며, 경륜·경정의 경우 있는 곳 42.9%, 없는 곳 57.1%로 조사됨.”(사감위, 장외발매소 연구결과보고서, 2010. 12).

유령 단체들을 동원하거나 단체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를 대대적으로 연, 부도덕한 마사회

지난 7월6일(일), 마사회는 관련 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어용 찬성 집회를 열었다. 새벽 6:30부터 관광버스 4대가 도착하여 젊은 남녀(대부분 남자)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와 건물 앞 도로를 메우고 집회 준비를 했고, 각종 단체들의 피켓을 들고 찬성 집회를 이어갔다. 마사회노조를 비롯하여 마주연합회,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경마와 직접 관련된 단체들도 있었지만, 나라사랑환경연합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관련 없는 단체들도 많았다.

대책위가 팻말 하단에 적힌 단체명을 파악한 개수는 모두 25개였으며, 팻말을 따로 들지 않은 마사회 유도단과 탁구단도 동원되었다. 이중 용산구장애인협회와 전국한우농민회는 실재하지 않는 유령단체로 확인됐다. 또한 원효로3가상인회도 공식적 차원의 상인회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낙농진흥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나라사랑환경연합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은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는 25개 단체들 중 마사회와 직결되는 10개 단체를 제외하고 대책위에서 일일이 실재를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부와 당일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마주연합회, 서울경마교교사협회, 서울마주협회, 제주경마장조기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등 10개 단체는 따로 조사하지 못함.)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어용 집회 동원 단체 조사

이 조사는 지난 7/6(일) 마사회가 대대적으로 어용 집회에 동원한 각종 단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허위나 드러날수록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규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니 힘드시더라도 심시일반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난 7/6 명의 참여단체(팻말 및 명의)

연번	단체명	단체 실재여부 (O, X)	전화번호	주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부(O, X)	7/6(일) 집회 참석 여부 (O, X)	찬성 이유
1	말산업발전유위 안동축산미생물 학회	O					현직업경정이 중앙연합회를 비롯한 4개 단체 연합
2	부산경남조교사 협회	O	051)901-711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길 929	당첨안됨	X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사업
3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O	091)292-49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문로 92	?	X	
4	한국동물약품협 회	O	091)707-21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광명로 기이로길 9-6 (수원동272-7)	X	X	동물약품협회는 경마산업과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 내로에서 경마장 운영에 대해 참여할 수 없음 집회에 참석할 수 없음 (경마협회)가맹을 단속 (경마협회 등)
5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O	02)6101-6543	서울특별시 용마로 9길 60 관동영농관공점	당첨안됨		

* 관련중앙중
경마협회 관련 기관

마사회 용산화상도박경마장 어용 집회 동원 단체 조사

이 조사는 지난 7/6(일) 마사회가 대대적으로 어용 집회에 동원한 각종 단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허위가 드러날수록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규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니 힘드시더라도 심사일반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

1. 지난 7/6 명의 참여단체(피켓 및 명의)

연번	단체명	단체 실재여부 (O, X)	전화번호	주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부(O, X)	7/6(일) 집회 참석 여부 (O, X)	찬성 이유
6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O	02- 774- 72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이-87	(용산부 내입력불가) O	X	마사회가 · 농축산 긴밀한 관계되어 찬성할수 밖에 · 없다
7	전국새농민회	O	02- 2080- 5611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승평중앙회 본관내	대문자: 뒤쪽중앙 (3~4마주 귀를) (생.치. 원.잇는부들)	X	관.진.원.했.나. 가.약.일.들. (대문. 상.구.하.는.곳.아.냐.) · 승.류.이. 대.문.자. 사.무.실.에.는. 인.이. 있.을.때.에.만 · 발.행.하.고. 할.
8	대한한돈협회	O	02- 581- 9751	서울시 서로구 서로중앙로 6길 9 제2충산회관 3층	필.연.이.가.만. → 연.각 · 구.성.기.업. → O · 공.공.필.요. (관.사.복.정.을 · → 용.의.필.요.로.)	O	
9	전국한우농민회	X					준.대. X.
10	낙농진흥회	O	02) 6007- 5500 (5546)	서울시 서로구 양재동 일동제약 4층	해.상.이.라.라.라. → · 형.성.도.영.양. X. · X	X	

마사회 용산화상도박경마장 어용 집회 동원 단체 조사

이 조사는 지난 7/6(일) 마사회가 대대적으로 어용 집회에 동원한 각종 단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허위가 드러날수록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규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니 힘드시더라도 심사일반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난 7/6 명의 참여단체(피켓 및 명의)

연번	단체명	단체 실재여부 (O, X)	전화번호	주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부(O, X)	7/6(일) 집회 참석 여부 (O, X)	찬성 이유
21	한국관광농원협 회	O	(화광) 010- 6384- 9898	강릉도 흥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282 (용화산 관광농원)	O	O	· 농민단체(36개 단체)의 의견이므로 · 장.려.하.는. 수. 밖에. 없다.
22	나라사랑환경연 합회	O	(생) 776 - 2215	서울시 마포구 일청로 212 12-6	X	X	X
23	한국마사회노동 조합	O	02-509 - 1108, 1109	정자동 2리신 경기공판대로 101 (주입실 685번지)	O (찬성.여.는. 아.니.는. 이.라.만 · 찬.성.)	O	· 회.사.이.름.으.로. 찬.여.함. · 마.사.회.가. 존재.하.야. 노.동.조.항.도. 존재.하.면.도 · 호.의.와. 입.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24	용산구장애인협 회	X					· 용.산.구.청. 사.회.복.지.자.에. 문.의.하.여 · 관.인.함. · 용.산.구.청.이.는. 그.러. 이.름.을. 등.어.부.족.을. 있.을.수.있.을. · 형.인.확.정.함.
25	원효로3가상인회	?					· 공.식.적. 차.원.의. 상.인.회.는. 없.음. · 사.조.직.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나. 확.

〈중앙선데이〉의 현명관 마사회장 편파 인터뷰(7/13)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반론

7월13일 중앙선데이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현재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마사회 측의 의견만 게재함. 대립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위의 반론을 덧붙임.

●인터뷰 출처

[중앙SUNDAY가 만난 사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3개월 시범운영이라도 해봐야 ...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742>

● 주민대책위의 반론

현명관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다. 마사회는 법과 행정청을 믿고 투자했다.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떤 기업이 거금을 투자하고, 경영 계획을 짜겠나."

=> (반론) 법을 어긴 것은 농식품부와 마사회임. 용산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는 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 적용되던 시기로, 본장 대 장외 비율이 3:7에서 5:5로 조정되었음에도 마사회는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허가를 했음. 순천과 용산 사례(마사회 간부 뇌물 요구 및 수수, 지역주민 동의의사 조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탈법의 중심에 있는 마사회가 법치주의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임.

현명관

"마사회는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해 1조 4432억원의 세금을 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사회공헌에도 열심이다. 무작정 부도덕한 기업으로만 매도받는 현실은 서글프다"

=> (반론) 1조4천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마사회가 낸 것이 아니다. 그 돈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낸 것이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대학보고서(2009 이화여대)도 있다.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용산 화상경마장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지방정부 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조세수입과 복지사업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지 마라.

현명관

"이걸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온당한가. 주민투표를 하면 주민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린다. 이러면 갈등이 되레 심해진다. 또 현 상태에서 투표는 기존 장외발매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이뤄진다"

=> (반론) 찬성하는 측이 훨씬 많다면 주민투표 못 할 이유가 뭔가? 마사회 규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선정 심의위원회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기

로 해놓고 내부직원만 참여시키면 공정한 심의가 되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사회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현명관

"변신이 없다면 마사회는 국민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장외발매소 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장외발매소를 주민 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여기에 총 652억 원을 투자한다."

=> (반론) 2008년 확정된 1차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이미 시 외곽에다 주민 친화적, 공원형 장외발매소 추진을 확정했다. 이미 5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곳도 추진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원래부터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데, 그것이 주거지, 학교주변으로 확대 이전한 것이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마사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현명관

"장외발매소를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토록 만드는 게 목표다. 그게 1단계다. 그런 다음엔 전국의 경마공원들을 가족 단위로 찾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만 봐도 여건은 충분하다. 서울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정도로 훌륭한 환경을 갖춘 곳이 어디있나."

=> (반론) 과천은 경마공원이지 화상경마장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경마공원을 문제 삼았나...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라.

주민들이 요청하도록 만들기 전에 내부 임원 및 직원 공모를 해서 마사회 관계자 고향과 주거도 시에 먼저 개설하라. 화상경마가 건전레저하고 하니, 회장부터 모범을 보여라. 손자, 손자 친구, 아들, 주변 가까운 지인에게 화상경마를 적극 권해라. 정부와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듯이, 마사회 직원들에게 마권 발매권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도 인정하겠다.